

the other 문화제 기획안-1

디아덜은 이번 문화제에 성폭력을 메인 주제로 삼기로 했다. 메인주제 : 성폭력
이번 문화제에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디아덜은 참여한다.

1. 게시판 (당신의 성폭력 유형은?)

도서관 앞 민주광장을 이용하여 구조물과 함께 게시판을 설치한다. 게시판 제목은 '당신의 성폭력 유형은?'이고, 형식은 여성잡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형 (YES or NO유형의 사다리식 설문 게임)으로 내용은 일상 속의 성폭력과 관련된 폭력유형과 관련된 것이다. ??? 이 계획의 경우 논의 후 게시판 작업 대신 자료집 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구조물

구조물의 경우, 한총련 사태 때의 성폭력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주제로 도서관 앞 민주광장에 설치한다. 95년 대동계 기간에 모 단체에서 대강당 앞에 설치했던 무기수 감방 구조물과 비슷한 형식으로 구조물 안에 한총련 사태 때의 사진이나 성폭행 당하는 그림들을 붙여놓고 사람들이 구조물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구경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

3. 자료집

한총련 정선대.
자료집의 경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일상 생활 속의 성폭력들, 노동법과 관련된 여성들의 문제들에 관한 글들로 채워질 것이다. 여기에 앞서서도 얘기한 '당신의 성폭력 유형은?'이 첨가될 지도 모른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한지영 (인문96)이 맡기로 했고, 생활 속의 성폭력의 경우 황선우(영문 95)가 맡기로 했다. 그리고 노동법과 관련해서는 강지현(경영95)가 글을 맡았다.

나머지 이야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나 문건 작성자가 회의에 참여하지 못했던 관계로 나도 잘 모르겠다.